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10월 6~7일 세계평화의전당

등록 2023.09.22 11:25:26

2023 제7회 전주비바체 실내악 축제
2023.10.06 FRI - 07 SAT

10.6 (금) FRI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10.7 (토) SAT PM 4:00 세계평화의 전당(야외음악회)

Conductor 강창우	Viola 김다미	Viola 김정연	Viola 김현미
Soprano 최은식	Viola 장일범	Viola 노윤경	Viola 문지원
Viola 송지원	Viola 양고운	Viola 유성민	Viola 이석중
Viola 홍의연	Viola 황인영	Viola 강윤지	Viola 김남준
Viola 이수민	Viola 홍지혜	Viola 홍진선	Cello 김두민
Cello 오지현	Cello 이강호	Cello 장하안	Cello 최경은
Cello 홍은선	Bass 권오정	Bass 조영호	Piano 김태형
Piano 이민영	Piano 전영선	Soprano 김순영	Tenor 김동원

티켓: 무료
문의: 010-5749-7742

주최 및 주관: &MF (사)비바체뮤직페스티벌
www.jeonjuvivace.com

후원 및 협찬: 전주시 전라북도 nmm 평화의전당
오래내피부과, 현대음악사, (아)공광리무진, Songwoo,
환경 아르떼TV

NEWSIS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2023 전주 비바체 실내악축제'가 오는 10월 6~7일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에서 펼쳐진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와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전주시민들이 정통 클래식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올해는 최은식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이번 가을 공연에서는 이틀간 멘델스존과 글리에르, 슈베르트, 생상스, 마스카니, 마스네 등의 작품이 청중을 맞이한다.

다채로운 공연과 연주를 통해 올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가족음악회는 10월7일 오후 4시 세계평화의전당 중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화림 전주비바체실내악축제 조직위원장은 "가을 연주회는 치명자산을 어루만지는 가을의 산들바람이 전주 세계평화의 전당 중정으로 내려와 우리 모두에게 음악과의 진정한 해후를, 활력 넘치는 삶과 행복으로 가는 긴 탐색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영숙 시 문화정책과장은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의 가을밤을 수놓을 클래식 축제"라면서 "한국의 전통과 서양의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연을 많은 시민이 즐기길 희망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이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